

##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·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

-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·시공 일괄입찰(턴키) 방식으로 원안의결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\*를 개최하여,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“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\*\*”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(약 11조원\*\*\*)의 입찰방법을 심의하였다.

\* 건설공사 입찰방법, 국가건설기준, 턴키 등 설계평가,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(건설기술진흥법)

\*\* 부지조성공사,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건축공사, 접근도로공사, 접근철도공사로 구분하여 추진 중

\*\*\*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비는 재검토하여 입찰공고 시 정확한 추정금액을 제시할 예정

-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‘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’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,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,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·시공 일괄입찰(턴키) 방식으로 원안 의결되었다.

-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되었다.

\*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

-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→ 연약지반 처리 → 방파제설치 → 해상매립 → 육상매립 →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, 설계·시공·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을 적용하기로 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“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적”이라면서, “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(2월 7일 14시, 건설회관)를 개최하고,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	책임자	팀 장	홍복의 (044-201-5207)
		담당자	사무관	백선영 (044-201-5208)
			주무관	유욱재 (044-201-5211)
	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현 (044-201-3561)
		담당자	사무관	박유서 (044-201-3564)
			주무관	배규민 (044-201-3565)

